

## 2019 서울시 추가채용 9급 한국사 정답해설(B 책형)

1. 밑줄 친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조선 시대 법령의 기본이 된 법전이다. 조선 건국 초의 법전인 『경제육전』의 원전과 속전, 그리고 그 뒤의 법령을 종합하여 만든 통치의 기본이 되는 통일법전이다. (……) 편제와 내용은 『경제육전』과 같이 6분 방식에 따랐고, 각 전마다 필요한 항목으로 분류하여 규정하였다.

- ① 성종 때 완성되었다.
- ② 조준이 편찬을 주도하였다.
- ③ 이·호·예·병·형·공전으로 나뉘어 정리되었다.
- ④ 세조 때 만세불변의 법전을 만들기 위해 편찬을 시작하였다.

정답 : ②

제시된 자료의 밑줄 친 ‘이것’은 성종 대 완성된 『경국대전』이다.

② 조선 태조 대 조준의 책임 아래 위화도 회군 이후 10년간의 조례를 모아 관찬 법전인 『경제육전』이 편찬되었다(1397).

①, ③, ④ 『경국대전』은 세조가 편찬 작업을 시작했고, 1485년 성종에 이르러 반포, 시행하게 된 법전으로, 조선의 모든 법이 담겨 있다. 『경국대전』은 6조 체계에 맞춰 이전(吏典)·호전(戶典)·예전(禮典)·병전(兵典)·형전(刑典)·공전(工典)의 6전으로 되어있고, 각조가 담당할 분야를 법으로 만들었다.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을 세분화하였다. 국가체제가 더욱 정비되어 감에 따라 조직적이고, 통일된 법전을 만들 필요가 커졌다. 세조는 즉위하자마자, 당시까지의 모든 법을 전체적으로 조화시켜, 후대에 길이 전할 법전을 만들기 위해 육전상정소를 설치하여 「호전」과 「형전」을 완성하였고, 성종 때에 이르러 완성되었다.

2. 1876년 체결된 조·일 수호 조규에 들어있지 않은 조항은?

- ① 조선은 자주국으로 일본과 동등권을 갖는다.
- ② 인천과 부산에 일본공관을 둔다.
- ③ 일본인 거주지역 내에서의 치외법권을 인정한다.
- ④ 일본선박의 조선연해 측량을 인정한다.

정답 : ②

② 조·일 수호 조규의 2조에 따라 외교관 파견과 서울 도성에 외교관이 상주할 공사관이 설치되었다(1880).

① 일본이 조·일 수호 조규에서 조선을 자주국으로 명기한 것 자체에 일본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 근대 조약에서는 조약국의 대내외적 지위를 굳이 명문화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명시한 것은 일본이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을 부인하려는 의도로, 조선

문제에 정국의 개입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③ 조·일 수호 조규의 10조는 치외법권을 인정한 것으로, 조선 정부는 개항지에서 활동하는 일본 상인들에 대해 단속할 법적 근거를 상실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처벌에 관여할 수 없게 되었다. ④ 조·일 수호 조규의 7조를 통해 일본은 조신 연안에 대한 측량권을 얻게 되었다. 이 조항에 따라 일본은 1877년부터 1879년까지 개항장 선정을 이유로 군함을 수시로 파견하여 동해와 서해안을 측량하였고, 여기서 수집된 자료는 군부가 주관하는 해도 작성에 활용되었다.

3. 영조의 정책에 대한 서술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기>                                                                  |  |
|-----------------------------------------------------------------------|--|
|                                                                       |  |
| ㄱ. 형벌 제도를 개선해 가혹한 악형을 없앴다.                                            |  |
| ㄴ. 서얼 출신의 학자를 검서관에 기용하고 공노비의 해방을 추진하는 등 서얼과 노비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
| ㄷ. 균역법을 시행하여 양반과 상민이 똑같이 군포를 부담하게 하였다.                                |  |
| ㄹ. 청계천 준설 사업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홍수에 대비하게 하였다.                               |  |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정답 : ①

ㄱ. 영조는 압슬형(壓膝刑) 등 가혹한 형벌을 폐지하고(1725), 문초할 때 낙형(烙刑)을 금지하였으며(1733),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三審制)를 엄격하게 시행하였다(1729). ㄹ. 영조 대의 사실로서 조선 건국 초기부터 수해(水害)가 극심했던 청계천의 준설 작업과 유로 변경 사업을 통해 치수(治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영조 36, 1760).

ㄴ. 정조는 신진 인물이나 중·하급 관리 가운데 능력 있는 자들을 재교육시켜 등용하는 초계문신 제도를 실시하고, 규장각을 설치하여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서이수 등 서얼 출신으로 능력 있는 자들을 규장각 검서관에 등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18세기 후반, 공노비의 노비안이 노비들의 도망과 합법적인 신분 상승으로 이름만 있을 뿐 신공을 받아낼 수 없게 되자, 순조 때에는 각 사(司)의 노비를 제외하고 내수사와 궁방에 소속된 노비 6만 6,000여 명을 해방시키기도 하였다(공노비 해방, 1801). ㄷ. 균역법은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감면한 것이다. 양반에게도 군포를 거두는 호포법 시행은 흥선 대원군의 정책이다.

4. 고려 시대 불교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태조는 훈요십조에서 전국에 비보사찰을 제한 없이 늘려 불국토를 이루도록 당부하였다.

② 현종 때에는 거란의 대장경을 수입하여 고려의 독자적인 『초조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했고, 완료한 후 흥왕사에 보관하였다.

③ 광종 대 균여는 국청사를 중심으로 해동천태종을 창시하고, 교종과 선종의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④ 삼국 시대부터 있어 왔던 향도를 계승하여 신앙의 결속을 다졌으며, 매향 행위를 함으로

써 내세의 복을 빌기도 했다.

정답 : ④

④ 향도(香徒)는 고려 시대 불교 신앙 활동을 목적으로 조직된 신도들의 결사체를 말하며, 그 기원은 삼국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고려 전기 향도는 불교의 신앙 조직으로 매향(埋香) 활동을 하였는데, 매향이란 위기가 닥쳤을 때를 대비하여 향나무를 바닷가에 묻었다가, 이를 통하여 미래불인 미륵을 만나 구원받고자 하는 신앙 활동의 하나였다.

① 태조 왕건은 “사원을 함부로 세우면 나라의 운수(運數)가 오래가지 못한다고 도선(道詵)이 말했으니, 도선이 산수(山水)의 형세를 살펴서 세운 사원 외에는 마음대로 사원을 창건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였다. ② 고려 현종 때 거란의 침입을 격퇴하기 위해 초조대장경을 조판하기 시작하였으며, 조판이 완성된 후에는 대구 부인사에 보관하였으나 몽골의 침입으로 소실되었다. ③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기 위해 국청사를 창건하고 해동 천태종을 창시한 승려는 의천이다.

5. 원 간섭기 고려의 국가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고려 전체가 몽골의 직할지로 편입되었다.
- ② 정동행성의 승상은 몽골의 다루가치가 전담하였다.
- ③ 관제격하의 일환으로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은 첨의부로 통합되었다.
- ④ 대막리지가 집정 대신으로서 국정을 총괄하였다.

정답 : ③

③ 원 간섭기에는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을 합쳐 첨의부, 6부는 4사로 관제를 개편 및 격하시켰다.

① 고려에는 정동행성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는 원나라의 다른 행성들과 같은 지방 행정기관이 아니었고, 오히려 고려 국가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지위를 원나라의 한 행성으로 규정하기 위한 형식적인 기관이었다. 따라서 부원배 세력은 정동행성을 폐지하고 다른 행성들과 같은 새로운 행성을 설치하자며 고려를 원의 직할지로 하자는 입성책동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② 정동행성은 고려의 자주적 발전을 억제하는 기관이었지만, 원 내지의 여타 행성과는 달리 국왕이 승상을 겸직하였다. ④ 대막리지는 고구려의 관등이다.

6. <보기>는 대한 제국 시기의 국권 피탈과 관련된 사건이다. 이를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 ㄱ. 일본은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였다.
- ㄴ. 일본은 대한 제국의 각 부에 일본인 차관을 두어 내정을 간섭하였다.
- ㄷ. 대한 제국은 재정과 외교 부문에 일본이 추천하는 외국인 고문을 두게 되었다.
- ㄹ. 고종은 헤이그의 만국 평화 회의에 특사를 보내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하였다.

① ㄱ-ㄷ-ㄴ-ㄷ

② ㄴ-ㄷ-ㄱ-ㄷ

③ ㄷ-ㄱ-ㄷ-ㄴ

④ ㄷ-ㄷ-ㄱ-ㄴ

정답 : ③

ㄷ. 1904년 8월에 체결된 제1차 한·일 협약, ㄱ. 1905년 11월에 체결된 을사조약에 대한 내용이며, ㄷ. 1907년 6월 고종은 을사조약의 무효를 알리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 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였으나 영국·일본의 방해로 실패하였다. ㄴ. 일제는 헤이그 밀사를 명분으로 1907년 7월 21일 고종을 강제 퇴위하고 이어 7월 24일 이완용과 ‘한·일 신협약(정미7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으로 통감의 권한이 확대되고 차관 정치(次官政治)가 실시되었다.

7. <보기>의 밑줄 친 ‘왕’ 대에 이루어진 내용을 옳게 고른 것은?

<보기>

재위 19년에는 금관국주인 김구해가 비와 세 아들을 데리고 와 항복하자 왕은 예로써 대접하고 상등(上等)의 벼슬을 주었으며, 23년에는 처음으로 연호를 칭하여 건원(建元) 원년이라 하였다.

ㄱ. 국호를 사로국에서 ‘신라’로, 왕호를 마립간에서 ‘왕’으로 고쳤다.  
ㄴ. 왕은 연호를 고쳐 ‘개국(開國)’이라 하였으며 『국사』를 편찬토록 하였다.  
ㄷ. 왕호를 ‘성법흥대왕’이라 쓰기도 하였다.  
ㄷ. ‘신라육부’가 새겨진 울진 봉평 신라비가 세워졌다.  
ㄹ. 연호를 ‘인평(仁平)’으로 고쳤으며 분황사와 영묘사를 창건하였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ㄷ

④ ㄷ, ㄹ

정답 : ③

밑줄 친 ‘왕’은 금관가야를 복속하고 건원 연호를 사용한 법흥왕이다.

ㄷ. 신라의 왕이 부(部)를 초월하는 존재로 등장하게 된 것은 법흥왕 때부터이다. 천전리 서석에서는 법흥왕을 성법흥대왕(聖法興大王)이라고 높여 부르고 있는데, 특히나 성법흥대왕이란 칭호는 불교의 공인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추측한다. ㄷ. 울진 봉평비는 법흥왕 때 율령 반포를 알려 주는 비석으로, 휘부의 모족지매금왕(법흥왕)을 비롯한 14명의 6부 귀족들이 회의를 열어 죄를 지은 ‘거벌모라 남미지촌’의 주민들과 지방의 지배자들을 처벌한 내용을 담고 있다.

ㄱ. 지증왕은 한화 정책을 추진하여 중국의 제도를 채택하면서 국호를 신라로 정하고 왕호를 마립간에서 왕으로 고쳤다. ㄴ. 개국 연호 사용과 역사서인 『국사』 편찬은 진흥왕 대의 사실이다. ㄹ. 선덕여왕은 인평이란 연호를 사용하였으며 분황사와 영묘사를 창건하도록 하였다.

8. 고구려의 대중국 투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고구려는 요서 지역을 선제공격함으로써 수나라를 견제하였다.
- ② 수 양제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 ③ 을지문덕은 당 태종의 2차 침입을 살수대첩으로 막아냈다.
- ④ 양만춘은 수나라의 별동대를 안시성에서 격퇴하였다.

정답 : ①

- ① 589년 수나라의 전국 통일 이후 고구려와 수나라의 군사적 긴장은 갈수록 높아졌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경 지역의 말갈과 거란을 둘러싸고 양국의 이해관계가 어긋나고 있었다. 이에 따라 598년(영양왕 9년) 고구려의 영양왕은 말갈 기병 1만 명을 동원해 수나라 영주총관부(營州總管府)를 공격했다. 이에 수나라 문제는 수군과 육군 30만의 대군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 ② 고구려는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성장하자 당을 견제하기 위해 631년부터 647년까지 부여성에서 비사성에 이르는 국경선에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③ 영양왕 때 수 양제의 침입을 을지문덕이 청천강 유역의 살수에서 막아내었다(612, 살수 대첩). ④ 양만춘은 645년 안시성에서 당 태종이 이끄는 당군의 총공격을 막아냈다.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9. <보기>에 해당하는 고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
| <보기>                                 |
| ○ 은정월(殷正月)에 제천행사를 행하면서 국중대회를 열었다.    |
| ○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소를 죽여 그 굶으로 길흉을 점쳤다.   |
| ○ 형이 죽으면 형수를 부인으로 맞아들였다.             |
| ○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는 물건 값의 12배를 배상하게 하였다. |
| ○ 지방 행정구획으로 사출도가 있었다.                |

- ① 소와 말을 순장하였고 큰 새의 깃털을 장례에 사용하였다.
- ② 제천행사는 ‘동맹’이었으며 국동대혈에서의 제사가 있었다.
- ③ 천군이 신성지역인 소도에서 농경의례 등을 올렸다.
- ④ 재해가 발생하면 왕은 교체 혹은 죽음을 당하기도 하였다.

정답 : ④

제시된 내용과 관련된 국가는 ‘부여’이다.

- ④ 부여의 옛 풍습에 장마와 가뭄이 고르지 못하여 오곡이 잘 영글지 않으면 그 책임을 국왕에게 물었다는 사실을 통해 당시 부여의 왕권이 안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① 『삼국지』 위서동이전의 삼한 조에는 ‘우마(牛馬)를 탈 줄 모르고 우마는 죽은 사람을 장송(葬送)하는데 모두 쓰였다고’고 하여 장례 시 소와 말을 순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삼한은 중앙에 널무덤이 있고 주변에 해자를 파서 경계를 삼은 주구묘를 만들었으며, 큰 새의 깃털을 장례 시에 함께 묻는 풍습이 있었다. ②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치

르고, 왕과 신하들이 국동대렬에 모여 제사를 지낸 나라는 고구려이다. ③ 정치적 지배자 외에 제사장인 천군이 있었고, 신성 지역으로 소도가 있어 이곳에서 천군이 농경과 종교에 대한 의례를 주관한 것은 삼한에 대한 내용이다.

10. 고려 시대 무신 정권기 정치와 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신 집권기 초반 정권을 잡은 무신들은 상장군·대장군의 회의 기관이었던 기존의 회의체 중방을 권력기구로 삼았다.
- ② 최충헌은 군국의 정사를 관장하는 교정도감을 설치했고, 최우는 정방과 서방을 사저에 설치했다.
- ③ 김보당과 조위충은 최충헌의 집권에 항거하여 군사를 일으켰다.
- ④ 이규보는 『동명왕편』을 지어 고려가 천손의 후예인 고구려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표현했다.

정답 : ③

③ 김보당과 조위충의 난은 정중부 집권기에 일어났다. 김보당의 난(1173)은 전왕인 의종을 복위를 도모하였고, 조위충의 난(1174)은 정중부의 무신 정권에 대항해서 일어났다. ① 정중부의 난(1170) 이후 상장군, 대장군의 무신 합좌 기구인 중방이 최고 권력 기구가 되었으나, 최충헌 집권 이후 교정도감이 최고 집정부가 되었다. ② 최충헌 집권기에 설치된 교정도감은 정적 제거 기구로 설치되었으나, 점차 국가 최고 기구로 발전하였다. 최우는 정방을 설치하여 모든 관직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하였고, 문신들의 숙위 기구인 서방을 설치하였다. ④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무신 집권기인 1193년에 편찬된 역사서이다. 「동명왕편」은 민간전승으로 내려온 고구려 건국 영웅인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일종의 영웅 서사시이다.

11. <보기>의 사실들을 시간 순으로 나열했을 때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  |
|---------------------------------|--|
| ㄱ.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 결렬            |  |
| ㄴ. 좌·우 합작 위원회, '좌·우 합작 7원칙'에 합의 |  |
| ㄷ. 이승만, 정읍 발언에서 남한만의 정부 수립 주장   |  |
| ㄹ. 유엔 소총회,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거 실시 결의  |  |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정답 : ①

제시된 사실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ㄷ. 1946년 6월 이승만의 정읍 발언, ㄴ. 1946년 10월 좌·우 합작 7원칙 합의, ㄱ. 1947년 10월 2차 미·소 공동 위원회 결렬, ㄹ. 1948년 2월 유엔 소총회의 남한만의 단독 선거 결정의 순서이다. 따라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사건은 ㄱ.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의 결렬이다.

12. 조선 시대 중앙 통치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문관 - 궁중 도서를 관리하고 국왕의 자문에 응하는 학문 기관
- ② 사간원 - 국왕에 대한 간쟁과 논박을 담당한 언론 기관
- ③ 승정원 - 국왕의 명령을 신하들에게 전달하는 비서 기관
- ④ 의금부 - 국왕의 명령을 받아 중대한 죄인을 다스리는 사법 기관

정답 : ①

- ① 궁중 도서를 관리하고 국왕 자문에 응한 기구는 홍문관이다. 예문관은 임금의 교지와 사명을 작성하였다.
- ② 사간원은 국왕의 잘못을 간하고, 관리들의 공정하지 못한 임명을 논박하고 시정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기관이었다. ③, ④ 의금부는 왕의 특명에 의해 큰 죄인을 다스리는 특별 재판소로서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승정원은 국왕의 비서 기관으로 국가 기밀과 왕명 출납을 맡아보았다. 따라서 두 기관 모두 왕권 강화에 기여하였다.

13. 1960년대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귀속 재산 처리법을 공포하였다.
- ② 한·미 경제 조정 협정을 체결하였다.
- ③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 ④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었다.

정답 : ④

- ④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1962년에서 1966년까지 추진되었다.
- ① 광복 이후 일본 및 일본인이 소유한 재산과 공장 등은 적산으로 규정되어 미 군정청의 귀속 재산으로 접수되었다가 1948년 8월 15일 이후 한국 정부로 이관되었으며, 1949년 12월에 제정·공포된 귀속 재산 처리법에 따라 1958년까지 민간인에게 불하되었다. ② 한·미 경제 조정 협정(마이어 협정)은 1952년 5월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이미 공여되고 있는 대한 경제원조와 관련해 각자의 역할과 양자 간의 관계 조정을 하고자 체결하였다. ③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의 가입은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6년의 사실이다.

14.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화이관(華夷觀)이라는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사대교린(事大交隣)을 기본 정책으로 삼았다.
- ② 북진 정책 하에 고구려 고토의 회복을 도모하였다.
- ③ 일본과 여진에 대해서는 무력 진압을 위주로 하였다.
- ④ 동남아시아 국가와는 교류가 없었다.

정답 : ①

- ① 조선 왕조는 명과 친선 관계를 유지하는 사대 외교를, 여진·일본에 대해서는 회유와 토벌을 병행하는 교린 정책을 추구하였다.
- ② 고려 태조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바탕으로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려는 북진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태조 말년에는 청천강에서 영흥만에 이르는 영도를 확보하였다.
- ③ 일본과 여진에 대해서는 회유와 토벌을 병행하는 교린 정책을 추진하였다.
- ④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류큐, 시암, 자바(자와) 등의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와 교류하였다. 특히 류큐와의 교역이 활발하였는데, 조선은 류큐에 불경, 유교 경전, 범종, 부채 등을 전해 주어 류큐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였다.

15. <보기>의 밑줄 친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신라에서는 사람을 등용하는 데에 ㉠을(를) 따진다. [때문에] 진실로 그 족속이 아니면, 비록 큰 재주와 뛰어난 공이 있더라도 넘을 수가 없다. 나는 원컨대, 서쪽 중국으로 가서 세상에서 보기 드문 지략을 펼쳐서 특별한 공을 세워 스스로 영광스러운 관직에 올라 고관대작의 옷을 갖추어 입고 칼을 차고서 천자의 곁에 출입하면 만족하겠다.

- ① 통일 신라기에 성립하였다.
- ② 국학이 설립되면서 폐지되었다.
- ③ 진골은 대아찬 이상의 고위 관등만 받을 수 있었다.
- ④ 혈통에 따른 신분제로서 승진의 상한선을 결정했다.

정답 : ④

밑줄 친 ㉠은 신라의 신분 제도인 골품제이다.

④ 골품제는 관등 조직과 연관되어 골품에 따라 승진의 상한선이 결정되었다.

① 신라 통일 이전인 법흥왕 때 율령을 반포하고 처음으로 공복을 제정하여 귀족을 관료로 등급화하여 17관등제를 마련하였으며, 골품제가 정비되었다.

② 골품제는 신라 사회가 멸망할 때까지 존속하였다.

④ 골품제는 승진의 상한선을 결정한 것이지만 하한선을 두지는 않았다. 따라서 진골은 모든 관등을 받을 수 있었다.

16. <보기>는 1927년에 창립한 어느 단체의 강령이다.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1. 우리는 정치·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1.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1.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 ①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하였다.
- ② 일제에 의해 조작된 소위 105인 사건으로 탄압을 받았다.

- ③ 전국에 140여 개소의 지회와 약 4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였다.
- ④ 1929년에 광주 학생 운동이 일어나자 민중대회의 개최를 계획했다.

정답 : ②

제시된 강령과 관련된 단체는 신간회이다.

② 105인 사건으로 국내 조직이 와해된 신민회에 대한 설명이다.

① 신간회는 자치 운동을 배격하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결합하여 1927년에 결성된 민족 유일당 운동 단체이다. ③ 신간회는 일제 강점기 하에 조직된 최대의 합법적 조직으로 전국에 140여 개소의 지회를 두었고, 약 4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였다. ④ 신간회는 1929년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나자 광주에 조사단을 파견한 뒤, 민중 대회를 개최하고 대대적인 반일 시위운동을 전개하려 시도하였으나, 일제에 의해 좌절되었으며, 허헌을 중심으로 한 지도부 다수가 일제에 의해 구금되었다.

17. 조선 초기의 과전(科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과전은 성종 때까지 경기도에 한정되었다.
- ② 현직 관리에게 소유권과 수조권(收租權)을 부여하였다.
- ③ 전직 관리와 현직 관리에게 모두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 ④ 과전에 대해서 상속권을 인정해 주었다.

정답 : ③

③ 과전법에서는 경기 지역에 한해 전·현직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① 과전법에서는 과전의 지급을 경기도에 있는 토지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1417년(태종 17)에 일시적으로 과전의 3분의 1을 하삼도(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옮겨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② 과전법은 소유권이 아닌 수조권만을 지급하였다. ④ 과전은 상속되지 않고 관직에서 물러나거나 반역을 저지를 경우 반납하였다.

18. <보기> 자료의 민족 운동가들이 추진한 독립 운동에 대한 서술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8월 초에 여러 형제분이 모여서 같이 만주로 갈 준비를 하였다. 비밀리에 땅과 집을 파는데, 여러 집을 한꺼번에 처분하니 얼마나 어려우리요. 그때만 해도 여러 형제분 집은 예전 대갓집이 그렇듯이 종살이를 하는 사람이 수 없이 많았고 (……) 우리 집 어른(이회영)은 옛날 범절을 따지지 않고 위아래 구분 없이 뜻만 같으면 악수하여 동지로 대접하였다. (……) 1만여 석의 재산과 가옥을 모두 팔고 경술년(1910) 12월 30일에 큰집, 작은집이 함께 압록강을 건너 떠났다.

-이은숙, 『민족 운동가 아내의 수기, 서간도 시종기』-

- ① 신흥강습소를 만들어 민족 교육과 독립군 양성을 추진하였다.

- ② 대한 광복군 정부, 대한 국민 의회 등의 독립운동 기지를 설립하였다.
- ③ 간민회를 기반으로 서전서숙과 명동학교 등 학교를 세워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 ④ 나라를 되찾은 후 고종을 복위시키려는 목표를 세우고 전국적인 의병 봉기를 준비하였다.

정답 : ①

제시된 사료는 이회영의 아내 이은숙이 남긴 『민족운동가 아내의 수기, 서간도 시종기』이다. 이회영은 신민회 회원으로, 이회영의 일가는 오늘날의 가치로 최소 600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전 재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망명하였다

- ① 이회영은 1910년 국권이 일제에 의해 강탈당하자 전가족이 만주로 건너가 황무지를 개간하며 독립운동기지 건설에 매진하였다. 1911년 교민자치기관으로 경학사를 조직하고, 1912년 독립군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신흥강습소를 설립하였다.
- ② 대한 광복군 정부는 이상설과 이동휘가 중심이 되어 결성된 독립운동 단체이고, 1919년 3·1 운동을 계기로 연해주의 전로 한족 중앙 총회는 한인 사회당의 일부 요인을 흡수하여 대한 국민 의회로 발전하였다.
- ③ 1905년 을사조약의 체결로 국망을 예견한 이상설은 1906년 8월 서전서숙을 설립하고 한인 자제를 모아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서전서숙의 뒤를 이어 1908년에도 김약연의 주도로 명동촌에 명동학교가 설립되어 민족주의교육의 본산으로 성장하여 갔다. 또한 북간도 일대에서 반일 계몽운동을 추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간민교육회가 결성되었고, 얼마 후 간민회를 발기함으로써 발전적 해체를 하였다.
- ④ 고종의 밀명을 받고 임병찬이 유생과 의병을 규합하여 복벽주의를 표방한 독립 의군부를 결성하였다.

19. 대한 제국의 근대화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 조사 사업을 시행하여 지계를 발급하였다.
- ② 서북철도국을 설치해 경의철도 부설사업을 추진했다.
- ③ 우편학당, 전무학당, 상공업학교, 의학교, 광산학교 등을 설립하였다.
- ④ 고종 대에 비변사를 설치하여 근대화사업 전반을 관장하였다.

정답 : ④

④ 흥선 대원군 집권기에는 의정부와 6조 및 삼군부의 기능이 부활하였고, 비변사가 혁파되었다.

- ① 대한 제국 시기인 1898년 양전 사업을 위해 양지아문이 설치되었고, 1899년부터 양전 사업이 실시되었다. 1901년에는 지계아문이 설치되어 지계 발급이 이루어졌으며, 1902년 양지아문이 지계아문에 흡수되어 지계아문에서 양전 사업과 지계 발급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 ② 대한 제국은 서북철도국(1900)을 설립하여 경의 철도 부설을 시도하였다.
- ③ 대한 제국은 1897년 체신 사무원 양성을 목적으로 우편학당, 전무학당(電務學堂)을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상공업학교, 의학교, 광산학교 등 근대적 기술자 양성을 위한 실업학교를 설립했다. 이는 상공업 진흥을 위한 인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었다.

20. <보기>에 나열된 고려 시대의 사건들을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 ㄱ. 거란의 소손녕이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입하여, 서희가 외교담판으로 거란군의 철수를 이끌어냈다.
- ㄴ. 노비의 신분을 조사해 본래 양인인 사람들을 환속시켰다.
- ㄷ. 송나라 사신 서공이 고려를 방문하고 『고려도경』을 지었다.
- ㄹ. 전지(田地)와 시지(柴地)를 실직(實職)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모두에게 처음 지급하였다.

① ㄱ-ㄴ-ㄷ-ㄹ

② ㄱ-ㄷ-ㄴ-ㄹ

③ ㄴ-ㄱ-ㄷ-ㄹ

④ ㄴ-ㄷ-ㄱ-ㄹ

정답 : ④

ㄴ. 광종 7년(956) 본래 양인이었으나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환량(還良)시켜 주는 노비 안검법을 실시하였다. ㄹ. 전현직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기 시작한 것은 경종 대의 시정 전시과이다. ㄱ. 성종 13년(994) 거란(요)의 1차 침입 때 서희는 요가 송과 대치 상태에 있어 고려와의 전쟁에 전념할 수 없는 전략적 약점을 이용하여 소손녕과의 담판을 성공시켰다. 고려는 송과 단교하고 요와 통교할 것을 약속하는 대가로, 강동 6주의 관할권을 얻어내는 성과를 올렸다. ㄷ. 『고려도경』은 북송 사신으로 고려에 온 서공이 인종 1년(1123) 개경에 들어와 7월 13일 귀국할 때까지 43일 동안 체류하면서 그 경과와 건문을 그림과 함께 엮은 사행 보고서이다.